

수준 높은 교육환경 만들기 '최선'

정현을 시장, 유아동물친화체험 현장 찾아 운영상황 점검 "체험중심 교육 확대로 유아 돌봄정책 지속 추진할 것"

정현을 익산시장이 지난 28일 '유아 동물친화체험' 현장을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정 시장은 익산공공수목장을 방문해 △포니 승마 △말 먹이주기 △VR 마차·MR 승마체험 △목각 말 인형 색칠하기 등을 지켜보며 체험 활동의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



그럼 중 하나다. 익산시와 익산 교육지원청, 원광보건대학교가 협력해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익산공공수목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과 전문 교관 인력을 갖춘 체험 시설이다. 어린이들이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감수성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유아동물친화체험은 교육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의 핵심 프로

그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우선 지난해부터 지역의 모든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유아를 대상으로 동물친화체험을 비롯해 생존수영, 숲·생태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 기업(주)하림

과 연계한 '하림치킨로봇투어'를 추가 운영해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내실을 더했다. 연간 총 체험 참여 인원은 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러한 유아교육·보육 정책이 출산율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익산시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도(0.70명) 대비 0.06명 증가했다.

앞으로도 시는 체험 중심 교육 확대를 통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유아 돌봄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아이들에게 질 높은 체험을 제공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익산 조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의회 의원들, 5분 발언 진행

"군산 새만금신항, 최후의 순간까지 방심하면 안돼"

군산시의회 의원 4명이 지난 28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김영일 의원은 군산새만금신항, 최후의 순간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영일 의원은 최근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 결정을 환영하며 새만금신항의 국가 관리무역항 지정을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는 반면, 군산시는 이와 같은 분위기에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가 새만금신항 운영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중앙합동정책심의회 실무협의회를 이미 개최했고, 빠른 4월 중 운영방식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군산시와 시민 모두가 최후의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은식 의원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화를 도모하자고 했다.

서은식 의원은 현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苦)' 현상으로 인해 서민 대출과 다중 채무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 미취업자, 노년층,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이 금융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연화 의원은 군산시 캠핑장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먼저, 현재 관광진흥과와

항만해양과로 나뉘어 있는 캠핑장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운영비 확보를 위해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되, 군산시민에 대한 할인율을 높여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기상 영향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관리도 캠핑장과 같이 운영이 어려운 캠핑장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 시민들이 시청에 방문할 때마다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해 주차장을 빙빙 도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당게는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의 핵심 원인은 관용차량에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군산시가 보유한 관용차량 206대 중 약 95대가 시청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차량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청 주차 공간은 지상 148면, 지하 250면으로 총 398면이 확보되어 있지만, 한경봉 의원이 직접 이른 아침 시간에 조사한 결과, 지상에는 26대, 지하에는 약 100대의 차량이 상시 주차돼 있었고, 이중 상당수가 관용차량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청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라며, 정작 시민이 시청 주차 문제를 방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무기라고 비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 '벚꽃 시티투어'로 봄만끽... 내달 5일부터 운영

익산시가 벚꽃 만개한 4월 특별한 시티투어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한다.

시는 봄을 맞아 '익산 벚꽃 시티투어'를 오는 4월 5일과 6일, 12일, 13일 총 4일간 주말을 이용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티투어는 익산의 아름다운 벚꽃 명소와 전통시장을 연계해 구성된 특별 노선으로, 봄 정취와 지역 상권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참가비는 1만원이며, 참여 신청은 오는 4월 3일까지 전화(063-841-4788)로 선착순 접수한다.

투어는 '인스타그램 코스'와 '감성충만 코스' 두 가지로 운영된다. 각 코스는 백제왕궁(익산 왕궁리유적) 등 주요 관광지뿐만 아니라 춘포역과 도정공장 같은 숨은 사진 명소까지 돌아본다. 특히 자전거를 타며 벚꽃을 감상하는 시간도 포함돼 감성을 더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는 중앙·서동·매일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지급돼 전통시장의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도 경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벚꽃 시티투어를 통해 많은 분이 익산의 봄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보건소, 2025년 1차 감염취약시설 간담회

군산시는 관내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2025년 1차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열린 이번 간담회는 보건소·감염취약시설 상호 협력 체계 구축과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감염관리 실무에서의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연구원을 초청하여 감염관리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산불 피해 주민 위해 따뜻한 연대의 손길

전 직원 자발적 성금 2400여만원 모금·희망 회복에 보탬 경원상사, 마스크 5000매 후원 등 이재민 일상회복 지원

익산시 직원들이 무주와 영남 등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했다. 익산시는 갑작스러운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성금 2,400여 만원을 모금하고, 이를 피해 지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익산시 전 직원이 자

발적으로 동참해 마련한 것으로,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익산시 공직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익산시자원봉사센터는 지역기업인 (주)경원상사(대표 박종근)의 후원을 받아 마스크 5,000매를 경북 의성군 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하며, 피해지역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을 챙겼다. 앞서 익산시는 재난 초기 대응의

일환으로 구호 텐트와 바닥 매트 50점을 긴급 조달해 이재민들에게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가며, 나눔과 상생의 공동체 정신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익산시민과 공직자가 하나 되어 나눈 정성이 피해지역의 회복에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깨끗한 바다 만들기 해양쓰레기 저감 '총력'

해양쓰레기 정화 등 10개 사업 추진... 올해 30억 예산 투입해 약 2500톤 처리 목표

군산시가 깨끗한 군산 바다 조성을 위해 30억 예산을 투입, 올해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세부 사업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 △해안정화 사업 △방치 선박 정리지원 등 10개 사업이다.

1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주민이 사는 어촌마을 환경을 직접 개선하도록 힘을 보탬 방침이다. 쓰레기 수거와 함께 일자리도 제공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깨끗한 천혜 어장 환경 만들기' 조성을 목표로 연안과 도서 지역 해양쓰레기 약 2,500톤 처리에 나섰다. 또한 육·해상 발생원 관리 강화, 효율적 수거 관리 기반 구축, 시민 참여 확대 등도 고려하고 있다.

그간 군산시는 278.36km(육지 181.54km, 도서 96.82km)에 달하는 긴 해안선 등 지리적 영향과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성 해양쓰레기 발생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시는 해양쓰레기 민원 대응팀을 설치했고, 해안가와 인접한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 예산도 지원해 상시

수거에 나서 계획이다.

접근이 어려운 암반 지역, 수거 사각지대의 경우엔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수거 방안을 마련해 지역 어민 등과 함께 수시 점검한다. 지역 환경에 따라선 소규모 어선 입차 또는 전문 장비 투입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민간단체, 기관 등과 협력해 해양환경 인식 교육 및 홍보활동도 확대한다. 해양쓰레기 발생이 많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정화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 어민 등의 인식 전환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 중앙동 '장 보고, 이색 체험도 하고'

내달 8일 '이리온(ON) 스크린 스포츠 체험관' 개관

익산시가 중앙동 구도심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상 스포츠 체험관을 조성했다.

익산시는 오는 4월 8일 종매서 커뮤니티라운지 2층에 '이리온(ON) 스크린 스포츠 체험관'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체험관은 행정안전부 주관 '슬기로운 동네생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통시장 내에 볼거리를 즐길 거리를 마련해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리온(ON) 체험관은 매주 화~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축구 △클레이사격 △덕헌팅 △피칭 △양궁 △캐논볼 등 총 9종의 가상 스포츠 게임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전통시장 또는 청년몰에서 3만원 이상 구매 시 6종 게임 이용권이 제공되며, 네이버 플레이스(종매서 커뮤니티라운지) 예약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체험관 개관을 앞두고 4월 1일부터 5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오후 1~5시 무료 개방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운영방안을 마련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리온(ON) 스크린 체험관은 전통시장과 체험 콘텐츠가 있는 이색 공간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주고 다양한 세대의 명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흩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함도문화전자대전